

고속 생산용 에어젯 직기

Jakob Müller사는 라벨, 문양 및 특수 세폭직물 제조용 에어젯 직기 MÜJET MBJL6를 출시하였다<그림 1>. MÜJET MBJL6은 1,200 mm의 작업 공간에서 2.05 m × 4.24 m의 직물을 950 min⁻¹의 생산 속도로 제조하여 단위 시간당 더욱 많은 라벨을 제조할 수 있다.

개구 장치는 특허 등록된 SPE3 1536 자카드를 장착하여 전자 구동방식으로 작동하며, 직기 상단에 장착되어 설치공간이 최소화된다<그림 2>. 3.65 m의 높이와 제품의 경량화 역시 장점이라 할 수 있다. 또한 MÜJET MBJL6는 기존 모델에 비해 공기 소비량을 크게 감소시켰으며, 터치 스크린을 통해 용이하게 동작시킬 수 있다.



<그림 1> MÜJET MBJL6 에어젯 직기



<그림 2> SPE3 1536 자카드

♣ Textile Asia, December 2014